

중소 화학기업 가동률 하락 “고전”

4월 73.5%에서 5월 74.6%로 떨어져 ... 고무·플라스틱제품은 상승세

중소 제조기업의 평균 가동률이 소폭 상승했다.

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가 중소 제조기업 1402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월 평균 가동률이 72.4%로 4월에 비해 0.6%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.

소기업은 69.9%에서 0.7%포인트 오른 70.6%, 중기업은 77.2%에서 0.3%포인트 떨어진 76.9%를 기록했다.

고무·플라스틱제품은 70.9%에서 73.7%로 상승한 반면 화학물질·화학제품은 74.6%에서 73.5%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평균 가동률 80% 이상의 정상 가동기업 비율은 45.9%로 4월 44.1%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<화학저널 2013/07/01>